'98사진영상의 해

덕유산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 2 ←

◇해발 950m 지점에 건설된 양수발전소. 이곳이 안국사와 적상산 史庫 터다. 현재의 안국사는 1949년 여순사건으로 인해 소실된 호국사터로 옮겨지었다.

◇60년대 중반부터 지역신도들과 합심해 중창된 백련사 전경.

고찰서 피어오르는 나라사랑 불심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있는 덕유산(德裕山). 중국 대륙에서 넘어 오는 황사와 산안개가 자욱히 피어 올라 한낮에도 앞산의 형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정상으로 오르는 능선에는 희끗희끗 눈무더기들이 계절을 잊고 붙어 있지만 골짜기마다 새순 돋아 오르는 아우성이 가득했다.

백련사 부용·벽암 주석처…복원 한창
원통사 을사조약때 항일운동 거점
안국사 史庫 유일하게 화마 안입어

지리산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백두대간은 영취산(1076)에서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을 나뉘고 위로 육십령을 거쳐 덕유산에 이른다. 덕유산은 남덕유산(1508), 삿갓봉(1767), 무룡산(1492), 동엽령(1260), 덕유상봉(1614)으로 이어진다. 향적봉이라고도 불리는 덕유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펼쳐진 산경은 두문산(1051)과 적상산(1034)을 품으며 추풍령, 속리산으로 혈맥을 잇고 있다.

민족수난사 함께 겪어

덕유산 산역에는 백련사(白蓮寺)와 원통사(圓通寺), 안국사(安國寺)가 자리하고 있다. 세 사찰은 하나같이 민족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불교사상을 민중의 삶으로 전했던 같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민족의 수난마저 온 몸으로 겪어야 했던 역사이기도 하다.

무주 구천동, 9천명의 성인이 살았다는 절경의 계곡을 지나 덕유상봉으로 오르는 길에 자리한 백련사(주지 광상)는 비 새는 지붕을 고치는 기와불사가 한창이었다. 신라 흥덕왕 5년(830)에 무염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백련사에서는 조선조 동안 부용영관, 정관일선, 부휴선수, 벽암각성, 고한희언, 임성충언, 미월당설흔 스님등 고승들이 법석을 펴고 수행했다. 정관일선 스님의 부도(전북도유형문화재 제102호)는 천왕문 앞에 있으며 당호가 같아 한때 김시습(매월당 설잠)의 부도로 잘못 알려졌던 매월당 설흔스님의 부도는 일주문 옆 부도밭에 있다.

백련사는 과거 수많은 스승들의 법기(法氣)를 잇기에 분주하다. 일제때는 구천동 계곡이 북해도제국대학의 대학림으로 지정되어 사찰건물이 일본식 초가로 변모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고 6·25전쟁 때는 사찰의 모든 당우가 불타 버렸었다. 그뒤 10여년을 폐허로 방치되다가 60년대 중반부터 복원불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대웅전과 원통전, 명부전, 보제루, 천왕문 일주문 범종각등이 갖추어져 사격을 쇄신했다. 백련사의 복원불사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속에 진행됐다. 특히 요사인 문향헌(聞香軒)은 1967년 무주읍내에 개인소유로 있던 무주부의 동헌건물을 신도들이 매입하여 옮겨 지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역사의 수난속에 버려졌던 폐사지에 십시일반 시주하여 당우를 지은 신도들의 신심으로 백련사는 새로운 가람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라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원통사(주지 정공)는 남덕유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 숙종조에 탄언도영, 혜월일학 스님등이 가람을 중창했다고 전하는 중창비가 남아 있으나 당시의 가람 규모는 알 수 없다. 원통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의병장 김동신, 문태서, 신명선등이 의병활동의 근거지로 삼아 일본의 국권침략에 맞섰던 호국도량이다.

험준한 산맥을 뒤로 하고 있는 원통사는 그 지리적 조건때문에 호국의 도량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1949년 여순사건때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전투장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절은 모두 불에 타버렸고 6·25전쟁과 불교 분규의 틈바구니에서 복구의 원력이 불을 밝히지 못한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말았었다. 그뒤 황범인(黃梵仁)스님이 중창 원력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했다. 그러나 불제자가 한번 세운 원력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 범인스님의 둘째아들인 황경석 거사가 8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주지 정공스님의 중창불사에 시주해 대웅전, 선초당, 명부전, 산신각등의 당우를 갖추었다. 궁벽한 산간의 원통사는 대를 잇는 불심으로 중창되어 호국도량의 맥을 잇게 된 것이다.

◇덕유산 정상 향적봉(1614)에서 바라본 지리산 방향. 좌측 봉우리가 삿갓봉이고 그 뒤가 남덕유산이다. 맑은날에는 지리산 천왕봉도 보인다.

덕유정상 서북쪽의 적상산 마루(950)에 자리한 안국사(주지 원행)는 고려 충렬왕 3년(1277)에 월인스님이 창건한 이래 여러 대덕들이 중창했다. 1864년에 지어진 '안국사중수기'에는 "나라에서 사각(史閣)과 선원각(璿源閣)을 지어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계보를 봉안케하고 승병들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였으므로 조금도 염려할 바 없이 안심되는 일이다. 안국사라고 이름한 것은 비록 작은 절이기는 하지만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큰 일을 하는 절이기 때문이다"라고 적혀있어 안국사의 위상을 말해준다.

스님기지로 실록 지켜

1614년 사고(史庫)를 설치하고 4년뒤에 묘향산의 실록등을 옮겨 온 이래 1910년 장서들이 서울의 규장각으로 옮겨질때까지 안국사는 나라의 정신을 지켰다. 우리나라의 사고 가운데 화마로 폐지되지 않은 유일한 사고가 적상산사고라는 사실은 안국사의 역할이 그만큼 컸음을 반증하고 있다. 안국사가 조선왕조실록 8백24책, 선원록 1천4백46책, 의궤 2백60책, 잡서 2천9백84책등 5천5백14책의 장서가 봉안된 사고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는 상훈스님의 일화가 잘 말해준다. 1627년, 그러니까 적상산에 사고가 설치되고 안국사에 승병92명이 상주하기 시작한 13년 뒤에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전쟁의 불길은 적상산으로까지 번져왔는데 이미 사고를 지키기에 승병의 전투력은 역부족이었다. 자칫 사고의 장서들이 모두 유실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때 상훈스님이 사고안의 장서들을 적상산 정상인 향로봉 아래 바위굴(안렴대)로 숨겨 전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한 시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적은 기록들이 지혜로와 용기를 겸비한 스님에 의해 지켜졌던 것이다. 상훈스님의 일화는 일본작가 이노우에 야스시의 소설 <돈황>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전란에 휩싸인 사주(沙州)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 불경 1만여권을 명사산 천불동 석굴사원으로 감추는 세 스님의 절박한 불심과 용기 말이다.

조선말 광무6년(1902년) 안국사에 대대적인 개수공사가 진행될때 조정의 승정원 비서원랑 유인철(柳寅哲)이 안국사를 방문해 상훈스님의 일화를 듣고 '석실비장(石室秘藏)'이란 현판을 남겼다. 주지 원행스님은 "최근 그의 후손들이 족보에 '유인철 대감이 석실비장이란 현판을 안국사에 남겼다'는 기록이 있어 확인하러 왔다며 찾아와 청하루 안에 걸린 현판을 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흰 학이 단청한 극락전"

지금의 안국사는 1949년 여순사건때 전소된 호국사터에 새로 지은 것이다. 1989년부터 적상산에 무주 양수발전소 건립사업이 추진되며 절 전체를 옮겨 지은 것이다. 안국사는 극락전등 옛건물을 옮기며 단청하나까지 옛모습 그대로 지켰다. 특히 극락전 좌측 뒤편에는 일부분 단청이 되지 않은 곳이 있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한다.

옛날 한 스님이 극락전 단청불사를 위해 고심할때 한 노인이 나타나 "전각 주변에 천막을 치고 1백일동안 들여다 보지 말라"고 한뒤 단청을 시작했는데 스님이 99일째 되는 날 천막안을 들여다 보고 말았다. 천막안에서는 흰 학이 단청을 하다가 스님이 훔쳐보는 것을 알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다. 지금도 극락전에는 딱 하루 일거리 만큼의 단청이 칠해지지 않은채 나무결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극락전 안에 보관되고 있는 괘불(국보 제1267호)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승 의겸스님의 작품이다.

덕유산이 품은 고찰들은 잃어 버린 옛 모습과 호국과 민안(民安)을 기원하던 정신을 되찾으며 백두대간의 속살에 맺힌 옛 스승들의 가르침을 오늘의 정신문화로 승화시키고 있다.

글=임연태·윤기석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조선말 비서원랑 유인철이 쓴 '석실비장' 현판.

◇정묘호란때 상훈스님이 적상산사고의 장서를 숨긴 향로봉 정상의 안렴대석굴.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다.

◇원통사 주변에는 옛 기와조각과 맷돌 등이 널려있다.

◇안국사는 노인복지시설 무우수마을을 올가을 개원한다.

■ 지역주민의 도량 일구는 안국사

실버타운·박물관·수련원등 건립

안국사는 옛 호국도량의 전통을 이어 지역주민과 함께 숨쉬는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해마다 10여개 단체들이 찾아와 각종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성보전시관을 건립, 적상산의 성보 유물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국사는 사회복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절반가량 공사가 진행된 실버타운 '무우수 마을'은 올 가을 문을 연다. 2천여평의 대지에 연면적 5백평 규모로 지어지는 노인복지 시설 무우수 마을은 15개의 방에 30명의 노인을 수용하는 유료양로원이다.

"각종 여가시설과 의료시설, 기도시설을 겸비하게될 무우수 마을을 유료로 운영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무료양로시설과 어린이 복지시설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안국사 주지 원행스님은 무주의 영동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의료 혜택을 극대화 하고 인근 무주리조트 시설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적상산 주변의 자연부락은 20여개다. 그 가운데 타종교 시설이 3개뿐이란 점을 감안, 안국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포교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적상산 정상의 아름드리 참나무 숲을 지역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단체들을 위한 상설 수련학교도 설치할 계획이다.

■ 개발에 신음앓는 백두대간

47개 포장도로 생태계파괴 주범

백두대간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47개의 포장도로와 25개의 비포장도로, 21개의 임업도로 등 93개에 이르는 도로들이 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진부령, 미시령과 지리산 성삼재등 30개의 포장도로는 대간 생태계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운동 단체인 녹색연합(공동대표 강문규 노융희)은 최근 96년 5월부터 97년 11월까지 실시한 백두대간 환경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보고서를 통해 "생태계 단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장도로는 90년 23개에서 최근까지 47개로 늘어났다"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로를 건설할 때는 야생동물등의 이동로가 끊기지 않도록 터널형 도로를 시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백두대간 남한지역 6백70㎞를 직접 답사하고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등 환경훼손 쟁점 지역들의 개발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군 작전지역상의 환경훼손, 고압송전탑 양수발전시설등의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현황들을 샅샅이 고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보고서와 함께 정부를 향해 백두대간 보전책의 마련과 백두대간 보존법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인터뷰 원통사 중창 3대인연 잇는 황경석 거사

"선친 원력·아들 왕생염원 담겼어요"

부모가 죽으면 먼 산에 묘를 쓰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묘를 쓴다고 했다. 죽은 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덕유산 깊은 계곡의 폐사 원통사를 중창복원한 일청 황경석거사(68세). 1983년부터 85년까지 3년에 걸쳐 황거사는 가파른 언덕으로 기와를 직접 나르며 원통사 대웅전을 비롯 요사채인 선초당, 초연교 등을 중창했다.

삼보법회 회장을 15년이나 역임한 황경석 거사가 원통사 중창불사를 발원한 것은 1982년 차남 선욱군을 잃고나서부터. 눈물로 49재를 마친 황거사는 마음을 잡지 못해 전국의 관음도량을 돌며 기도정진을 하던 중 양양 낙산사에서 신묘한 꿈을 꿨다. 원통사 대웅전에서 두 스님의 부축을 받고 나오는 아들을 보게 된 것. 스님께 달려가 연유를 물으니, 왕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꿈에서 깬 황거사는 곧장 원통사로 달려갔다. 신라때 창건된 고찰 원통사는 선친 범인스님이 1962년 입적할 때까지 머물었던 인연있는 도량. 당시는 1949년 여순반란사건으로 인해 전소된채 겨우 초막으로 사세를 이어오던 초라한 모습이었다. 범인스님이 복원의 비원을 이루지 못한 도량을 둘째아들인 황거사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슬픔'으로 중창하게 된 것이다.

용성스님 고화지침

1. 불교의 생활화이니 생활이 곧 부처님법이요, 부처님법이 곧 생활이니라.
2. 불교의 대중화이니 불사를 통하여 온 겨레 전 인류 다함께 성불인연 짓는 일이니라.
3. 불교의 지성화이니 참선 염불 간경 주력이 4대 수행이니라.

협찬 대성사(583-1475)·대각사(765-0972) 경주 천룡사(0561-748-8815)